

“풍수지리설은 동양고유의 ‘사상’이다”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펴낸 **최창조** 교수

원래 풍수지리설은 氣철학에 바탕한 동양고유의 ‘사상’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풍수지리설은 마치 심심찮게 눈에 띄는 운명철학관 만큼이나 우리에게 ‘미신’에 가까운 의미를 갖는다.

최창조 교수(40, 서울대 지리학과)는 현재의 왜곡되고 타락한 풍수지리의 제모습찾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좋은 땅을 골라내는 기술이란 풍수지리설의 응용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갖고 있는 근본사상에 대한 이해는 전제되지 않은 채, 이기적인 땅욕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수지리의 사상성 강조

최교수가 최근에 출간한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서해문집)는,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풍수지리설의 위상을 정립해보고자 하는 그간의 그의 작업의 결과이다. ‘한국풍수의 이론과 실제’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수사상의 역사와 이론적 배경, 그리고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켰을 때의 ‘좋은 땅’의 의미를 여러가지 실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최교수에 따르면, 풍수사상의 핵심은 “天道와 人倫과 地利가 조화된 장소를 선정하는 종합적 안목”이다. 즉, 하늘의 이치가 어긋나지 않도록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자신들이 거처할 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찾아낸 땅이 진정한 의미의 ‘명당’이다. 이렇듯 실생활의 터전인 ‘땅’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인간의 윤리성(人倫)이 바로 풍수지리설이 갖는 사상적 근간이자 덕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 유행하고 있는 풍수, 그가 비판하고 있는 ‘이기적’ 풍수란 바로 天道가 배제된 채 이용가치와 소유의 개념으로서만 땅을 대하는 요즘 사람들의 이기심을 뜻하는 것이다.

“풍수의 역사로 보자면 현대는 말세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최교수에 따르면, 언제나 왕조 말엽이면 도참사상과 결합하여 ‘천지개벽사상’ 등의 전초가 되거나 기존왕조나 특권층가문을 위한 터잡기의 양상을 보여왔다는 것. 현재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나 주택난도 따지고 보면 ‘있는자’의 땅욕심에서 비롯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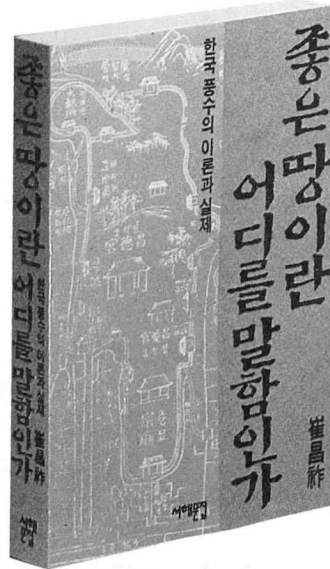
최창조 교수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수궁이 가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당시의 타락한 풍수지리를 비판했듯이, 이제는 최교수 자신이 그 비판기능을 담당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는 것이다. 특히 얼마전 「조선의 풍수」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과 관련하여 그는 기존의 풍수지리 관계도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일차적으로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이렇다할 연구서나 대중을 위한 제대로 된 개설서 한편 내놓지 못한 당사자의 책임이 크지만, 적어도 그 책의 집필의도는 읽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소위 문화정책의 결과였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더 큰 문제는 이책이 풍수지리의 근간을 이루는 氣論에 대한 언급없이 그 자료적 성격만 부각되면서 왜곡된 풍수지리설을 유포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

또 하나의 예로 드는 것이 최교수 자신이 84년에 출간했던 「韓國의 風水思想」(민음사)이다. 당시 1만5천부가 팔려나갈 정도로 의외의 반응을 보인 이 책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막상 자신은 전문서적으로 선보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풍수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막상 그 책을 접한 일반인들은 몇페이지 읽고 그냥 덮어버렸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풍수지리에 대한 현재의 사회적 통념이 관계서적에 대한 물이해로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낸 책은 그래서, 풍수지리의 사상성을 이론적으로 체계



화시키면서도 그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풍수전적 번역이 우선돼야

이렇듯 ‘학문’으로서의 풍수지리의 평판치 못한 정착과정은 이미 그의 대학원 시절부터 예견된 바 있다.

풍수지리에 관한 석사논문을 제출했을 때 “계속 그쪽을 공부하고 싶다면 나가서 하라”는 ‘충고’를 듣기도 했었다는 그는 오히려 군대 생활을 하면서 보다 자유롭게 몰두할 수 있었다고. 83년 「풍수설 좌향론상의 길흉판단에 대한 위학적 해설」이란 제목으로 처음 학회에 풍수지리를 선보였을 때만 해도 많은 논란과 함께 수정이 요구되기도 했다.

그러나 84년 최교수의 책이 여하한 의미로든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부터는 “풍수도 지리학이나”라는 ‘박대’는 모면하고 자연스럽게 학계의 인정을 받게 된 것 같다고 한다. 더구나 그간의 학계의 큰 변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88년 현재 몸담고 있는 서울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석사과정 대학원생 4명과 함께 그나마 공동의 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분야의 제1세대로서 그가 감수해야 했던 소외감과 위기감이 요즘에 와서야 어느정도 보상을 받고 있는 셈이지만, 아직도 각 학문이 갖는 특수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유로운 학문정신’이 부족하다고 최교수는 지적한다.

“풍수지리학의 성격상, 그것이 아무리 현대

적 의미의 학문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이라해도 전공자 스스로 地氣를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하는데, 이 氣에 대한 ‘느낌’은 솔직히 이론화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때로 저희들을 ‘정신적으로 이상한 패거리’로 보는 눈이 있지요.”

최교수는 개인적으로 풍수지리학의 ‘地官’이 될 충격적인 계기를 경험한 바 있다. 고등학교 재학시 ‘山魃’가 씌웠던 것이다. 일종의 ‘병’이었다고 회상하는 그는, 당시 자주 찾아갔던 망우리 묘지는 물론 어딜가도 “땅 속이 흰히 들여다 보였다”고 한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론을 구사해야만 하는 학자로서의 면모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반은 지금도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氣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는, 그렇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은 사회학이 아니라 문학이나 예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주관적 측면이 많이 개입되는 인문학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교수는 서울대로 옮기고 난 후부터 그가 ‘뒷산’이라 부르는 관악산에 올라가 ‘땅’을 밟는 것이 주요일과가 되었다. 그래서 연구실엔 항상 등산화가 한귀통이에 자리잡고 있다.

이번 책을 위한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그는 전국의 명당이라 불리는 곳은 물론 수많은 산들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이름난 산보다는 평범한 야산을 즐겨 찾았다. 인간의 사심이 덜 미친 곳일수록 地氣가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최교수는 이번 학기부터 풍수典籍을 번역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사실 가장 기초작업에 속하는 번역작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작업이 전제되어야만 이 분야의 인구조도 많아질 것이고 저도 덜 외롭겠지요. 그러나 관심을 갖고 저를 찾아왔던 학생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지만 합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 서구화된 ‘체질’로는 도저히 氣의 실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봅니다.”

—정소연 기자